# 정광고 진로박람회서 첫 '출가 홍보'

**7월 13일, 출가 상담 부스 운영**
**명상 체험 진행…150명 발길**
**군승 · 단기출가학교 등 소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는 7월 13일 진로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출가 상담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 유일의 불교종립학교인 정광고등학교(교장 영일 스님)가 진로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출가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출가 홍보 등이 이뤄진 부스에는 학생 150여 명이 찾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정광고는 7월 13일 교내에서 열린 '2026 진로·진학·교육과정 박람회'에서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와 함께 '출가 상담 및 명상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상담에는 붓다선원 선진 스님과 혜등 스님이 참여해 출가 절차와 수행자의 삶, 단기출가학교를 비롯해 동국대학교 소년출가자 특별전형과 불교계 인재전형, 군종법사 진로 등을 소개했다. 또 남녀공학인 학교 특성을 고려해 비구니 군종법사의 활동과 군종장교, 군종병 제도 등 불교계의 다양한 진로도 함께 안내했다.

학생들이 고민을 돌에 적어 내려놓는 '돌 명상' 체험도 함께 마련돼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이어졌다.

이날 상담 부스에는 전교생 1050명 가운데 약 150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0여 명은 출가와 단기출가학교, 군승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법사로 활동해 온 영일 스님은 학생들이 불교를 친숙하게 접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출가 상담 부스 운영을 추진했고, 조계종 포교부가 상담 스님을 지원했다.

정광고 교법사 진현 스님은 "학교 축제에서 출가 체험을 운영한 사례는 있었지만, 진로박람회에서 출가 상담 부스를 운영한 것은 정광고가 처음"이라며 "각 학교에서 열리는 진로박람회를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불교 진로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법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군종법사라는 진로를 알리고 싶었다"며 "출가 역시 다양한 진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광고는 7월 10일 논산 육군부사관학교 군승인 선효 스님을 초청해 군승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 130명이 참여해 군종장교와 군종병 제도, 불교적 진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출가 상담에 참여한 최지훈 학생은 "학교에서 직접 출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출가 과정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관심이 생겼고, 나중에 붓다선원의 단기출가 체험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윤혁 학생은 "중학생 때까지는 불교를 잘 몰랐는데 정광고에 와서 여러 불교 행사에 참여하며 관심이 생겼다"며 "스님들과 상담하면서 군종장교라는 진로도 처음 알게 됐고, 앞으로 더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광고는 이번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출가와 명상에 관심을 보인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멘토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조계종 포교부와 연계해 단기출가학교 등 다양한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적 진로와 출가에 관한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조계종 출가 전문 사이트(monk.buddhism.or.kr) 또는 출가상담전화(1666-7987)를 통해 언제든 안내받을 수 있다.

# 덕숭총림, 하안거 반결제 승보공양 봉행

**7월 12일, 예산 가야사지서**
**20회 반철산행도 함께 진행**


덕숭총림 수덕사는 병오년 하안거 반결제를 맞아 7월 12일 예산 가야사지에서 제20회 반철산행 및 제15회 승보공양 법회를 봉행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병오년 하안거 반결제를 맞아 7월 12일 예산 가야사지에서 제20회 반철산행 및 제15회 승보공양 법회를 봉행했다.

가야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수행 환경을 보전하자는 원력을 담은 반철산행은 올해로 20회를 맞았으며, 안거 대중의 원만한 수행 성취를 발원하는 승보공양은 15회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비롯해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과 본말사 스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우송 스님은 법문에서 반철산행의 수행적 의미와 승보공양의 공덕을 설했다. 스님은 "안거를 시작하고 한 달 반을 정진한 만큼 반철에는 충분히 걸으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몸 구석구석을 움직이며 남은 안거를 다시 정진할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하는 납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는 것 또한 큰 수행인 만큼 모두가 함께 걸으며 수행의 의미를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20년간 이어진 덕숭총림의 반철산행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 정진의 터전을 지켜내겠다는 서원이 더해진 역사적인 걸음"이라며 "15년 전부터는 본말사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승보공양을 함께 올리며 안거 대중의 원만한 수행을 발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승보공양에서는 수덕사 본말사 신도들과 단체들이 정성을 모아 공양을 올리며 안거 대중의 원만한 수행과 하안거 성만을 발원했다.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가야사지를 출발해 퉁퉁고개를 거쳐 보원사지까지 반철산행을 진행한 뒤, 수덕사와 보원사 신도회가 마련한 막국수와 냉면으로 공양을 함께하며 하안거 성만을 발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생명살림운동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창립 18주년 기념법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 스님)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후원의 날을 열고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실천 의지를 다졌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7월 10일 광주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2층에서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날 및 녹색불교아카데미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립기념식과 후원의 날, 우수회원 시상, 소모임 소개, 녹색불교아카데미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등이 진행됐다.

상임대표 해청 스님은 인사말에서 회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생명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스님은 "18년 동안 환경연대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실천 덕분"이라며 "올해도 쌀 나눔과 지구의 날 행사, 영산강 생명살림 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후원의 날을 여는 이유는 영산강의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길에 앞으로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격려사에서 "18년 동안 환경연대가 걸어온 길은 흔들림 없이 이어온 생명살림의 실천이었다"며 "생태환경 위기 시대에 불교의 연기와 자비를 몸으로 실천하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등은 연대사를 통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탐진치 바오밥 뽑자"

**자비명상, 굴암사서 하계 워크숍**
**죽음 명상 등 지도자 역량 강화**



동국대학교 부설 미래융합교육원(원장 박서진) 자비명상과정 수강생들이 탐(貪)·진(瞋)·치(癡)를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는 명상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2박 3일간 수행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자비명상(이사장 마가 스님)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안성 굴암사(주지 해성 스님)에서 '탐진치의 바오밥을 뽑자'를 주제로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하계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자비명상 1급 과정 16명(7월 10~11일), 2급 과정 30명(7월 11~12일)의 총 46명 수강생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근본 번뇌인 탐·진·치를 이론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삶을 직접 마주하는 체험 활동을 이어갔다.

마가 스님이 지도한 '유서 쓰기' 죽음 명상은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안겼다. 참가자들은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가상의 죽음을 마주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유서를 작성했다. 글을 쓰며 곳곳에서는 눈물을 흘렸고, 탐욕과 집착으로 키워온 내면의 '바오밥 나무'를 뽑아내는 시간을 마주했다.

'희로애락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마주 앉아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고, 서로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깊은 공감과 유대감을 쌓아갔다.

마가 스님은 "명상 지도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아픔에 머물며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과 수행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 온 가족 함께 "한글이랑 갑사랑 놀자"

**공주 갑사, 8년째 유산 활용사업**




공주 갑사(주지 탄공 스님)는 7월 11일 가족이 함께 한글과 불교문화의 가치를 배우는 '한글이랑 갑사랑 놀자!'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6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천강에 달이 뜨니 만사가 다 저절로다'의 세부 프로그램이다.

갑사는 8년째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천강에 달이 떠오르다' '계룡산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지구생활' '한글이랑 갑사랑 놀자!'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갑사가 간직한 역사·문화·생태 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프로그램은 참가 어린이들이 부모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통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며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이어 '석보의 가르침, 손끝에 담다'를 통해 한글로 편찬된 불교 경전인 〈월인석보〉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나의 월인석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학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체험에 참여하며 한글과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가족이 함께 작품을 완성하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 결과를 공유했다.

주지 탄공 스님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며 그 가치를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갑사가 간직한 역사와 불교문화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모두가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사)붓다·유디치과, 치아 돌봄 MOU

**7월 10일 협약식…봉사자 · 신도 의료서비스 제공**




사단법인 붓다(이사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회주)와 유디전주효자치과의원(대표 원장 손효준)은 7월 10일 치아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유디전주효자치과의원은 사단법인 붓다 소속 봉사자와 복지 수혜 주민들은 물론 붓다복지관과 마이산 탑사 및 말사 신도들에게 치아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또 붓다복지관에 대한 홍보와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단법인 붓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깨달음을 사회에 환원하는 길"이라며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손효준 유디전주효자치과의원 대표 원장은 "사단법인 붓다의 이웃을 돕는 마음과 치과의 의료 전문성이 만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이웃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청주 용화사, 어린이 체험학습 성료

**7월 11~12일, 문화유산 활용사업**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10회 어린이 사찰체험학습'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 '칠존석불에 기원하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장 스님은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친근하게 전했다. 스님은 "올해로 네 번째 어린이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새로운 에너지를 느낀다"며 "오늘 절에 온 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부처님을 가까이하고 그 마음을 배우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장 스님의 사찰예절 교육을 통해 합장과 절하는 법, 법당 예절 등을 배우며 사찰문화를 익혔다. 또한 '용화사 출토 칠존석불을 만나다'를 주제로 문화유산 만들기와 그리기, 칠존석불 3D, 메타버스(VR) 등을 체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도광사 불교아카데미, 찬불가 특강

**7월 14일, 1기 아카데미 강좌**



천안 도광사(주지 탄문 스님)는 7월 14일 불교아카데미 제1기 강좌의 일환으로 찬불가 특강을 개최했다.

불교아카데미 학장 탄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자라면 최소한의 찬불가는 알고 함께 부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법회에서도 자신 있게 찬불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준형 한국불교음악인연합회 운영위원장은 '찬불가의 역사와 법회 의식'을 주제로 방은희 한국불교음악인연합회 사무국장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불가의 역사와 법회 의식의 구성, 현대 찬불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